

“가장 높지만 추악한 상류사회 욕망 적나라하게 그려”

영화 ‘상류사회’ 이번달 29일 개봉
박해일·수에 “욕망부부로 호흡 시너지 좋았어요”



“수애씨는 파워풀한 단거리 욕망선수 같아요. 연기와 실제 모습도 목표를 정하면 앞으로 내달리는 성격이죠.”(박해일)
 “박해일 선배는 연기를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하는 완벽한 분이예요. 귀와 마음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어 촬영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분이죠.”(수에)
 영화 ‘상류사회’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춘 박해일(41)과 수애(38)는 31일 서울 롯데시네마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시너지가 너무 좋았다”며 서로 치켜세웠다.
 오는 29일 개봉하는 이 영화는 각자의 욕망으로 얼룩진 부부가 아름답고 추악한 상류사회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박해일은 경제학 교수이자 촉망받는 정치 신인 장태준을, 수애는 야망으로 가득 찬 미술관 부관장 오수연을 연기했다. 태준은 우연한 기회에 정치에 입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고, 수연은 미술관 재개관전을 통해 관장 자리에 오르려 한다. 그러나 수연의 미술품 거래와 태준의 선거 출마 뒤에 어두운 거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두 사람은 위기에 처한다.
 박해일은 “시나리오를 봤을 때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밀어붙이는 이야기의 힘이 있었다”면서 “장태준은 여태껏 해본 역할 가운데 가장 야망이 강한 캐릭터여서 호기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준은 순수한 교수였다가 정치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는 변화무쌍한 캐릭터”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수애는 “오수연은 성공의 욕망을 쫓는 인물로, 남편이 욕망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동지를 만난 듯 기뻐하지만, 오히려 그게 뒷이 돼서 파국을 맞는 역동적인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국가대표2’(2016) 이후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수애는 “이전 작품들에서는 주로 내면 연기에 치중했다면, 이번에는 외적인 이미지도 신경을 썼다”면서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긴 머리를 단발로 과감하게 잘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부부 연기는 수애가 먼저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박해일은 “작년 봄 전주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만난 수애씨가 이 영화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귀띔했다. 수애는 “(박해일) 선배와 꼭 한번 작품을 같이 해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욕망을 드러냈다”며 웃었다.
 영화 ‘인터뷰’(2000), ‘주홍글씨’(2004)에 이어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은 변혁 감독은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4~5년이 걸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 감독은 “제 아버지 세대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면, 다음 세대는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그런 차이 때문에 상류사회가 요즘 더 부각되고, 조금만 더 가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노력만으로는 계급상승이 불가능해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상류사회를 다룬 영화는 많았지만, 이 작품은 상류사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심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윤제문이 돈과 예술을 탐닉하는 재벌가 회장으로, 라미란이 우아하고 교만한 미술관 관장으로 출연했다. 이진욱은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로, 김강우는 비열한 사업가 역으로 특별 출연했다. /연합뉴스

“이웃들 더위 이기는데 힘 되고 싶어요”

최강창민, 5000만원 기부

그림 동방신기 멤버 최강창민(본명 심창민·30)이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에 기부했다.
 3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강창민은 최근 “이웃들이 더위를 이겨내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는 오는 8월 초까지 지하방, 고시원, 지붕이 낡은 주택에 사는 450여 가구에 선풍기, 냉풍기, 소형냉장고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최강창민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5년간 누적 후원금이 1억원 이상인 후원자 모임이다.
 그는 지난해 포항 대지진 피해 지역 저소득층 아동 생계비로 4500만원을, 올해 어린이날을 앞두고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5500만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연합뉴스



이제훈·채수빈 인천공항인 되다

SBS 새 월화극 ‘여우각시별’ 캐스팅

배우 이제훈(34)과 채수빈(24)이 SBS TV 새 월화극 ‘여우각시별’에서 호흡을 맞춘다.
 흥보사 3HW COM은 오는 10월 방송 예정인 ‘여우각시별’에 이제훈과 채수빈, 이종건, 김지수가 출연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우각시별’은 인천공항의 ‘심장과 폐’ 역할을 하는 여객서비스처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다.
 이제훈은 카이스트 졸업, 토익 만점이라는 흔치 않은 이력에 최고 점수로 인천공항에 입사한 이수연으로 변신한다. 딱 6개월만 적응해 보자는 것을 목표로 공항에 입성, 주변인들과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두는 비밀스러운 인물이다.
 채수빈은 3수 끝에 인천공항에 합격하지만 사건·사고를 몰고 다니는 한여름 역할을 맡았다.
 이 작품은 ‘제빵왕 김탁구’, ‘구가의 서’, ‘가짜끼리 왜 이래’, ‘남만닥터 김사부’를 집필한 강은경 작가와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구가의 서’를 만든 신유철 PD가 2013년 ‘구가의 서’ 이후 재회한 드라마라 기대를 모은다.
 제작사 삼화네트웍스는 “모든 것이 특별한 인천공항을 배경으로, 가슴 따뜻한 감동을 안길 휴먼 멜로드라마의 탄생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밥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시간(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끝까지 사랑(재) 40 당신의 하우스헬퍼(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시간(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시사기획 창(재)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TV속의 TV	55 닥터 365
[2]	45 UHD 숨터(재)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헬로키즈 동물교실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프리파라 3 55 섹션 TV 연예통신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00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 하는 창작동요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탐정 토비와 테리 30 여름특선 만화 <코딩배틀네오봇 마스터>	00 5 MBC 뉴스 20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었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미니다큐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당신의 하우스헬퍼	00 시간	00 친애하는 판사님께
[11]	00 KBS 뉴스라인 40 미래를 위한 선택, 축산 혁명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로맨스 페기키 1~2부
[12]	3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55 인간극장 스페셜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6:30 알라라 뿌우(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우간다 르네조리트레일 빙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칠리새우 오픈 샌드위치와 연두부 요거트>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얼마 깨트리
06:20 세계테마기행(재) <유목민의 땅 중앙아시아 3부 알타이산맥을 찾아서>	12:00 EBS 정오뉴스	17:30 뽕뽕뽕 뽕로로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10 EBS 초대석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5
07:30 꼬마버스 타요	13:00 지식채널e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08:00 당동맹 유치원1~2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30 EBS 뉴스
08:30 미니특급 X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재)	19:50 초이슈
08:45 알라라 뿌우	14:30 코코몽3	20:40 세계테마기행 <꿈꾸던 여름 캐나다 동부 3부 그곳엔 더위가 없다>
09:00 얼마 깨트리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오지의 여름 3부 청산도>
09:30 원더볼스	15:15 파프리카	21:50 EBS 다큐프라임 <한국의 강>
09:40 우리가족 거리 춤하기 - 부모성적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극한직업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명이나 영달이 따를 수도 있다. 48년생 추진하고 있던 일이 지연 되는 위상이다. 60년생 중도가 가장 무방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72년생 절실한 부분부터 손을 대자. 84년생 미룬다면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37, 00</p>	<p>午 42년생 돈을 보고 도리깨짐을 흘리고 있는 이치이다. 54년생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함을 알고 있다. 66년생 경험을 살린다면 무난하게 타개할 수 있다. 78년생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결정하라. 90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곤혹스럽겠다. 행운의 숫자 : 26, 95</p>
<p>丑 37년생 집요하게 파헤쳐야 드러나겠다. 49년생 목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61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접한다. 73년생 길경이 넘칠 수니 기분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겠다. 87년생 변화는 새로운 발전을 기억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6, 17</p>	<p>未 43년생 사랑이 깊은 이는 미움 또한 깊은 법이다. 55년생 목격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분명한 나타난다. 67년생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을 해보자. 79년생 불완전하다면 백 번이고 다시 하라. 91년생 남치는 기쁨의 경행을 향유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7, 58</p>
<p>寅 38년생 파격적인 시도가 형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50년생 적극성을 띠면 훌륭한 성과가 기대 된다. 62년생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74년생 모든 것을 차지하고 새롭게 시작함이 유익하다. 86년생 보이지 않는 작용력이 있다. 행운의 숫자 : 94, 40</p>	<p>申 44년생 잠시 보류해 두자. 56년생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낙오자가 된다. 68년생 집요하게 인한다면 늦게나마 대성하리라. 80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지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할 판국이니라. 92년생 사전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당황하리라. 행운의 숫자 : 74, 25</p>
<p>卯 39년생 모면하려고만 한다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51년생 두 말하면 잔소리다. 63년생 교체되면서 원점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75년생 길경이 넘칠 수니 기분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겠다. 87년생 변화는 새로운 발전을 기억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76</p>	<p>酉 45년생 상황 설정에 따라 판이해진다. 57년생 세밀하게 조절해야 할 입장이니라. 69년생 판세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일이 보인다. 81년생 여유를 갖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라. 93년생 균형을 잃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93, 46</p>
<p>辰 40년생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52년생 호기가 주어질 수 있다. 64년생 뜻밖의 행운이 보이니 놓치지 마라. 76년생 소화해 낼 수 있으나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88년생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70, 64</p>	<p>戌 34년생 당연하다고 여겨 왔던 관행 속에 위험 인자가 숨어 있다. 46년생 중국의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다. 58년생 발전적인 방향이므로 계속 진행해도 된다. 70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82년생 다소 하향 조절하라. 행운의 숫자 : 42, 62</p>
<p>巳 41년생 가장 일반적인 것에 정답이 있다. 53년생 신중하지 않으면 손재수가 생길 것이다. 65년생 마음만으로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77년생 조건에 따른 변수가 있다. 89년생 지출이 발생하겠지만 장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09, 57</p>	<p>亥 35년생 아무리 살펴봐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47년생 활용 여부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달라진다. 59년생 허탈해하는 형상이다. 71년생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문체이다. 83년생 절대로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3, 07</p>